

# 복잡한 약정·혜택 덜어낸 미니멀 통신 서비스

## SKT 신규 서비스 ‘에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최적화  
전용 앱으로 가입·해지 간소화  
에어 포인트로 실용적 혜택 제공  
무약정으로 위약금 부담도 없어

SK텔레콤이 2030세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정조준한 새로운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오는 13일 공식 선보인다. ‘통신 미니멀리즘’을 기치로 내건 에어는 복잡한 약정과 부가혜택을 덜어내는 대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표방한다.

SK텔레콤은 1일 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 성수에서 SK텔레콤 신규 서비스 출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서비스 에어를 소개했다.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과 실용성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T멤버십, 유무선 결합 할인, 장기 고객 혜택 등을 과감히 없앴다. 대신 자급제 고객 선호도가 높은 5G 데이터 구간 6개로 요금제를 간결하게 구성했다. 요금은 월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까지이며,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무약정이라 위약금 부담도 없다.



이윤형 SK텔레콤 air기획팀장이 1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를 소개하고 있다. /SKT

기존 혜택을 덜어낸 자리는 ‘에어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로 채웠다. 사용자는 전용 앱에 탑재된 만보기, 밸런스 게임(‘오늘의 픽’)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매월 최대 5000원까지 통신요금을 차감하는 데 쓰거나, 앱 내 ‘포인트샵’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편의점·백화점 상품권 등 1000여 종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를 ‘앱테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고객의 지속적인 앱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

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는 서비스 경험 전반을 디지털에 최적화했다. 복잡했던 개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분 30초면 가입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을 우선 지원한다. 전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예약 가입’을 통해 다음날 오전에 자동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센터 역시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1:1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향후 AI 챗봇 도입도 계획 중이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화이트해커 검증을 거쳤으며, 외부 기관과 협업해 명의도용 등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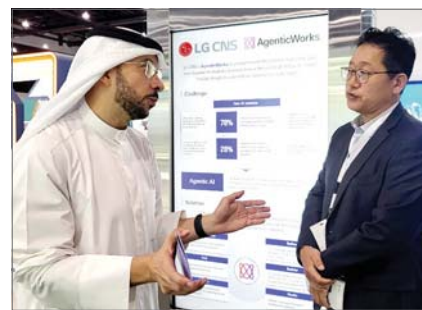
안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가서비스는 고객 수요가 높은 실용적인 상품으로 구성했다.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한 번으로 쉽게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에어가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SK텔레콤 이윤형 에어기획팀장은 “알뜰폰과 경쟁을 생각해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자급제 단말을 쓰는 고객에게 통신 품질 외에 일상 속 혜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자는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알뜰폰도 매제공의무사업자인 만큼, 에어요금제를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혁신적 시도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직원이 IDCE 2025에 마련한 부스에서 고객과 에이전트 AI 플랫폼 및 제조AX 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LG CNS

## LG CNS ‘IDCE 2025’ 참가 제조특화 AX기술로 중동시장 공략 나서

LG CNS는 제조 현장 특화 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앞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린 ‘IDCE 2025’에 참가해 S-OIL과 공동 부스를 마련하고 ▲플레이어스택 최적화 시스템 ▲공정위험성평가 분석 AI 에이전트 ▲PSM AI 튜터 ▲AI 사고 신고 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표 솔루션인 ‘플레이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AI 영상 분석과 CCTV를 활용해 연기의 색상과 불꽃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밸브를 자동 제어해 공정 안정성을 높인다. ‘공정위험성평가 분석 AI 에이전트’는 설비 도면과 사양을 자동 분석해 평가 시간을 60% 이상 줄이고 정확도를 높인다.

‘PSM AI 튜터’는 직원 안전교육을 모의면접 방식으로 지원하며, ‘AI 사고 신고 시스템’은 사진·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유형과 심각도를 분석해 보고서 작성과 기관 신고까지 자동 처리한다.

LG CNS와 S-OIL은 올해 2월 지능형 공장 구축 협약을 체결한 뒤 석유·정유 산업 현장에 AX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LG CNS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아랍코 등 중동 주요 기업과 협력 논의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대기업·스타트업 등 203개社 AI 혁신기술 한눈에

## ‘AI 페스타 2025’ 인산인해 가온아이 등 中企도 한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술을 뽐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AI 페스타 2025’는 국내외 200여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거대언어모델(LLM)부터 생활 속 AI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하듯 기술력을 뽐낸 현장은, 정부가 내세운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AI 페스타가 ‘인공지능(AI) 주간 2025’ 행사의 일환으로 열려 이날에만 1만 여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번 AI 페스타는 총 203개 기업이 466개 부스를 열고 AI 혁신의 현주소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최종 정예팀 5팀이 모인 국가대표 AI 기업관 입구 풍경. /김서현 기자

전시했다. 전시는 ▲AI 코어존 ▲AI 융합존 ▲AI 트렌드존 ▲AI 거브존 등 네 가지 콘셉트로 나뉘어 전시됐다.

행사장은 자사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입구 가장 앞에 부스를 차린 KT는 B2B부터 B2C까지 망라한 AI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하고 유명인 아바타와 사진을 찍는 체험 공간을 꾸렸다.

정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최종 정예팀 5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별도 공간에서 부스를 꾸렸다. 이들 기업들은 각사에서 개발 중인 LLM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행사장의 많은 부스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특히 카카오키 큰 호응을 받았

다. 카카오키는 카카오토에 적용한 챗GPT를 시연하고, 현재 개발 중인 언어모델 ‘카나나(Kanana)’를 소개했다. 읽지 않은 채팅을 요약해주는 기능 등 아직 카카오토에 적용되지 않은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AI 산업을 선도 중인 중소기업들도 한 자리에 모였다. 21개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관에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번 KOSA 부스에 참가한 기업은 가온아이·구루미·나라원시스템·나무기술·데이터사이언스랩·레블업·뤼튼·바이브컴퍼니·베슬AI·비큐AI·엘리스그룹·와이즈넷·와이즈스톤·유라클·이노그리드·이스트소프트·지란지교소프트·캐디안·큐밋·클루커스·토토시스템 등 총 21개사다. 이들 기업은 AI B2C 서비스부터 인프라, 각종 솔루션, 플랫폼, 데이터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술 상품들을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 메타빌드, SaaS 기반 ‘AI민원행정 서비스’ CSAP 인증 획득

접수부터 응답까지 전 과정 자동화

메타빌드는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공공 AI전자민원 SaaS 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AI민원행정서비스 ‘시빌마인드(CivilMind)’가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 주관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2030년 9월 11일까지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시빌마인드는 대

규모 언어모델(LLM)과 RAG, 에이전트, RPA 기반으로 민원 접수부터 분석, 처리, 응답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클라우드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민원내용 분석, 상담, 상담사 어시스턴트, 지식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

하며, 음성·텍스트·영상 입력을 아우르는 멀티모달 방식과 키오스크·모바일 앱·디지털 휴먼 UI/UX도 제공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원행정의 자동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빌드는 이번 CSAP 인증을 계기로 공공부문 AX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KT 국제전화 구독형 상품 001글로벌Free 출시

KT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전화를 월 12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1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프리)’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001글로벌프리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KT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도 쓸 수 있다. 월정액은 7700원으로, 120분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001 표준요금 대비 86%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KT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와 유학·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고품질 국제전화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 출시 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는 첫 달 요금을 50% 할인한다. 가입은 KT닷컴, 마이케이티 앱, KT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